## 이렇게 들었다

### 아름다운 회향

## "최선 다한 한 해였나…"

▨수미산은 높고 넓기는 해도 끝내 무로 돌아가고, 대해는 깊고 넓기는 해도 또한 말라붙을 때가 온다. 해와 달은 아무리 밝아도 오래잖아 서쪽으로 넘어가야 하고, 대지는 견고해서 온갖 것을 싣고 있을 수 있으나, 주겁(住劫)이 다하여 겁화(劫火)가 타오르면 그 역시 무상으로 돌아갈 운명에 있다.

<대반열반경>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버린 것은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로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대가전연일야현자경>

▨"너희는 잘 들으라. 온갖 현상은 무상하여 생겨서는 없어지는 성질의 것이다. 견고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니, 이는 절대적 경지인 것이 아니어서 즐길 것이 못된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해탈을 구해야 할 것이다."

<살발다경>

고령의 나이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하고 있는 귀화인 1호 민병갈씨(81세, 쌍용증권 고문)의 이야기가 연말을 맞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으로 칼 밀러가 본명인 민씨는 지난 1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후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천리포 수목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태안반도에 18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그의 천리포 수목원에는 7천 여종이나 되는 많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힘든 항암치료를 받아가며 천리포 수목원과 쌍용증권 사무실을 오가면서 한시도 나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은 적이 없는 민씨는, 오늘도 더 많은 나무를 이땅에 심고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남은 생의 하루하루를 나무와 함께 하는데 바치고 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더 많은 희망을 심어놓기 위해서….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2001년 새해 달력을 펼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의 끄트머리에 다다랐다. 1년이라는 시간을 단위로 삼아 우리는 매년 이맘때면 지난 동안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특히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1년 살이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향의 기도를 올린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리는 것"이라고 설했다. 불자 모두가 자신이 닦은 선근과 공덕을 돌려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회향의 본 뜻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더욱 튼실한 내년을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은자 기자

# "개미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자"

### 불자 세상보기

## 기부문화 뿌리내려야

## 세금혜택 등 정부 노력을

권기대
경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난 16일 '한국경제학회'에서 일반국민과 대학생, 교수, 기업인사담당자, 신입사원 등 2,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기업가의 개인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의 개인재산 처리방법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 조사대상의 72.4%가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액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13.6%에 달했다. 대학생과 신입사원, 심지어 기업인사담당자도 '기업가가 개인재산의 일부라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설문에 찬성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교수들은 '사회환원(43.6%)보다는 기업가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53.2%)'는 견해가 많았다.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궁금하다. 분명히 시장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업가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울화가 치밀고 섭섭하며 불만스러웠을 것이고, 교수들의 응답결과에는 다소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번 돈의 사회환원을 덕목으로 간주하고 습관처럼 실천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부문화가 우리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가가 자신이 소유한 개인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실천적 구상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은 축적한 개인재산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세제의 혜택과 재산의 후계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정치자금의 헌납과 로비 등 부의 사회환원에 대한 방어적 인상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인색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올해 이동통신 업체들이 휴대폰이용자들의 요금인하 요구에는 외면한 채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돈을 벌어 사상최대규모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뉴스는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한다. 게다가 어느 촌로의 밥장사로 번 10억대의 땅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기부한다든지, 젓갈장사로 모은 돈을 어느 대학에 기증한 것이라든지,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치 개미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 아름다운 미담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결론적으로 기업가들이 소유한 개인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구조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구매행위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한다는 개방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기업가들이 소유한 개인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세금감면이나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교육을 통해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의 육성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열린마당

### 한 불자청년의 병역거부 선언

# "'살생 금지' 광의해석 마땅"

한 불교신자가 17일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오태양씨(26)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따른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민간대체봉사제도' 도입을 호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일부 네티즌은 오씨의 입장에 동조했으나, 대다수는 오씨의 행위를 비난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과연 불교 교리와 사상 등 불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불교학자의 견해를 듣는 한편, 네티즌들의 반응을 종합했다.

### 네티즌 반응

○…당신이 선택한 '양심'은 군대가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이라고 정의 내려질 때에야 비로소 '불교적 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황태완>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이다. 사명대사와 서산대사를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불살생 이것은 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학생>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보다도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권리를 향유하기 전에 국민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레밍이>

○…군생활보다 더 오래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봉사>

○…군대가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님들도 예전에는 나라가 위험할 때 무기를 들지 않았는가. <초롱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곽계영>

○…신앙이라는 종교적 문제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면 남의 수고로움에 기생하는 사람밖에 안된다. 불교의 이타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쿠웨이트 박>

○…대만과 이스라엘도 종교적 신념보호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무심이>

○…임란, 호란 때 봉기해 싸운 100만 호국승병들은 극락왕생 못 했겠네. <공수래 공수거>

○…서산대사는 잘 알려진 분으로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으로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의병활동이상으로 한국 불교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최승호>

○…양심적 병역거부는 민주주의의 한 실험이다 <홍영일>

○…불교신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치 각자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은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박성훈>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가르침을 애써 행하지 않는다면 아프간의 비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생명을 보듬으려는 일이 아닐까? <인권과관용>

○…단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씨를 비난하지 말자. 그의 선택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할 그의 짐이다. <불살행>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보통국민>

## "호국 불교정신 망각"

## "민주주의의 한 실험"

### 교리로 본 병역의무

목정배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불교인이 군 입대의 문제에 대하여 불교의 근본교리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입대를 거부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합당할지 모르나 불교의 대승적 사상에 비추어 보면 논리에 모순이 생긴다고 본다. 삼국시대의 고승 원광의 입장이 불교와 국가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본다.

불교의 근본계율은 불살생인데 원광이 살생유택과 임전무퇴를 표방한 것은 단지 신라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 즉 삼국 간에 전쟁이 빈번하여 모든 국민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향시키려는 깊은 종교심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살생은 불가에서 원칙적으로 금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무량한 공덕과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살생을 죄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세속지선계(世俗之善戒)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처럼 종교적 계관(戒觀)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국가에 응용되고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 공익성의 계관으로 변용시킨 것이 그의 종교관이요 국가관인 것이다. 이 세속지선법이 확고부동하게 실천되고, 이러한 신념이 국가와 민족에 바로 직결되는 역사적 계관의 일심귀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원광은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세속지선계는 화랑의 수행덕목이 되어 신라 젊은이들을 하나의 이념과 통일된 사상으로 결속시켜 나갈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끊임없이 범경(犯境)하여 전쟁이 그칠 날이 없던 상황에서 역사와 민족의 철학으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사실 출가자는 불살생을 근간으로 하는 계관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미 세속지선계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속에서 임전무퇴와 살생유택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종교적 입장만을 내세워 나라의 처지를 모른 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원광은 국가와 종교가 일원론적인 궤(軌)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권(國王力)·인민(諸衆生)·영토(器世)가 함께 온존해야만 한다고 여겼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바로 위기가 직면한 신라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에 의존하면서 생을 부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원광이 신라가 직면한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종교인이 지녀야 할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불교는 광의적 현실참여 정신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호국일선에 나선 사람은 원광만이 아니다. 고구려 승려인 도림도 장수왕의 백제 침공시 첩자로서 활동하여 백제 공략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신라 진흥왕 때 군사지휘관인 거칠부도 승려출신이었다. 백고좌법회나 팔관회 같은 호국적 색채가 짙은 불교의식이 승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도 모두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불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불가피한 살생과 부처님 가르침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다. 최근 입대를 거부한 한 불자청년의 고뇌도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호국을 위해 무량공덕과 민족적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불가의 살생은 대승적 차원에서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곁에 한발짝 성큼 다가오는 성철큰스님
중앙일보에 6개월간 절찬리 연재된 〈산은 산 물은 물 - 곁에서 본 성철스님〉, 그 감동의 이야기 드디어 책으로 출간!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❶❷

잔잔한 미소로 만나는 큰스님의 따뜻한 절간 삶

서슬 푸른 기개와 고집으로 알려진 한국 선불교의 거목 성철스님. 그러나 그 뒤에는 더없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탱글탱글한 뱃가죽에 으쓱해하고 아이들과 짓궂게 장난치는 천진함, 새로운 물건에 어린애처럼 신기해하는 모습, 제자를 호통치듯 슬쩍 감싸 안는 모습. 20년간 그분을 모신 원택스님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큰스님의 모습을 만나십시오.

원택 지음 | 각권 270쪽 내외 | 값 각 8,500원

서점에 있습니다. http://www.gimmyoung.com TEL 02)741-1990 김영사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가 묻는다.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 351쪽 | 값 9,500원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
그를 바라보는 거의 매순간, 그는 웃고 있거나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을 미소짓게 만든다. 그는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이며, 몇 권의 탁월한 영성서적의 저자이다. 왜 그는 그토록 인기가 있는가? 종교를 초월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달라이 라마. 그와 단 몇 분간만 앉아 있어도, 당신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걸 어쩔 수 없을 것이다.